

2020년 9월 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6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 찬 송 / 410장(통468)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5 - “평안의 복음이준비한 신발”

신발도 과연 갑주에 포함되는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 로마 군인의 갑주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갑주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발이 갑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는 그 신발을 신은 자의 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발과 이 발을 보호하는 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발을 움직일 수 없다면, 전투에서 그 군인이 가진 전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전투에서 발은 민첩한 움직임,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강한 기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싸움에서 발의 움직임의 중요성은 특히 몸과 몸을 마주 부딪치는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권투나 다른 격투기에서 스텝의 중요성을 통해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는 스텝을 다향하게 익혀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건한 발은 오랫동안 행군하고 또 적과 격전을 벌일 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발이 편안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는다.”라는 헬라어 “취뽀데사메노이”는 다른 갑주를 설명하는 동사들 즉 허리띠를 두르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검과 말씀을 가지라와 같이 14절의 “서다”와 인과 관계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신는다.”는 직역하면 끈을 묶는다는 의미로,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장으로 사용하던 신발은 정강이 중간까지 덮는 일종의 부츠였으며, 앞을 끈으로 묶어 종아리에 고정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신는다는 동사가 헬라어에서 중간 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발을 신는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신는 사람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평안의 복음

이렇게 전투용으로 신는 신발은 오랫동안 신고 활동해도 발이 덜 피곤하도록 고안된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갑주로서의 신발을 평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란 구문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준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혹은 “평화의 복음을 준비해서 신으로 삼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주석가는 “준비한 것으로”의 헬라어 “엔 헤또이마시아”를 단단한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의 발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한 것으로”는 오랫동안 이동하거나 싸울 수 있도록 잘 고안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곧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의 이해를 **로마서 10장 10~18절** 특별히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대한 생동감 있는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18절의 이 단락에서 사도바울은 이방 선교의 부르심은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 받아 구원의 의에 이르는 데 이들은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18절은 성도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외에 또 하나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측면이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일꾼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파자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을 **이사야서 52장 7절 즉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자들의 발”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파자의 발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발, 곧 발걸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발걸음이 이동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나아가 평안의 복음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평안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은 혹 이를 방해하는 세력, 즉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며, 그 평안으로 복음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평안의 복음에서 소유격 의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는 복음은 “원천” 혹은 “원재료”를 의미하고 평안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즉, 복음이 제공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뜻으로서 복음의 여러 요소 중 영적인 감주로서의 평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에베소서에서 평안은 편지 전체의 논지에서 중심 단어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은 2장 11~22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평안”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본은 이 단락에서 “화평”과 “평안”을 혼용하여 쓰고 있지만, 둘 다 원어로는 “에이레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이란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총 네 번 등장합니다. 1장 13절에서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며, 3장 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곧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는 복음을 “비밀”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는 것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비밀의 핵심요소이며 이 평안과 화평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비밀에 관한 것이며, 또 복음은 화평과 연결되어 그 화평으로 원수가 되고,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이고, 이 복음이 적용되는 곳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받을 때 내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복음이 기존 가치가 내가 생각하던 삶의 가치와 다름을 통해 때론 걸림돌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결국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며 삶 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이러한 평안과 화평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복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11장(통473) 아 내 맘속에

◎ 폐 회 / 주기도문